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향기

‘여성대통령’ 시대 실감



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

여성후보들이 정치적 경쟁력과 젠더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활용해나갈지 그 효과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를 추적해보는 것이 여성유권자들이 진지하게 살펴볼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이다.

”

매회 5월 초 여성신문사에서는 여성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마라톤 대회에는 여성대선주자 3인이 나란히 참가해 주목을 끌었다. 보도진의 카메라는 일제히 여성대선주자들의 담소와 인사 발언을 포착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후보들이 흥일점도 아니고 여력이 나와서 서로 특징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기사를 자주 써야 하는 일도 처음 있는 일이다. 여성신문을 19년 동안 발행하는 동안 수많은 선거관련 보도를 해왔다. 늘 우리의 주제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남성후보들과 유권자들의 여성관을 진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한국사회가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어느날 여성 대통령 후보들이 그것도 여러명이 줄지어 서있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사회 벌어진 진풍경

요즘은 기사시절 만났던 남장 여성의원이었던 김옥선 의원의 모습이 문득 떠오른다. 검은 양복과 짙은 목소리는 비장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모습은 곱고 맑았다. 정치를 위해 여성성을 거세하고 남자의 모든 것을 닮아야 했던 부자연스런 시대가 바로 얼마전이었다. 이런 시대를 뒤로 하고 이제 한국사회는 ‘여성대통령 시대’를 논하는 자리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도 여성대통령이 트렌드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후보 루아얌은 패배했

지만 많은 것을 낚았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주목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성과이고, 지지율도 50%에 육박하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의 마지막 선택은 사르코지였다.

루아얌은 매력적인 여성후보였다. 루아얌은 페미니스트이고 사회주의자였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진영은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여성지지율은 사르코지 보다 낮았다. 그의 좌파 노선의 공약은 프랑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루아얌의 패인 분석은 한국의 여성 정치인들에게도 전략적으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선 여성후보들은 일단 국가 현안 해결에 경쟁력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데서 비교우위에 서야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전에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확인하기를 유권자는 바라고 있고,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남녀 무한경쟁 시대에 무아찰처럼 “난 여성이라 이렇게 저렇게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여성후보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우호적 태도는 여성이라면 무조건 찍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격이라면 여성이라고 해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 여성다움과, 여성해방주의와의 사이에서 여성후보의 위치설정에도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루아얌은 페미니스트인 동시에 여성다운 매력을 어필했다. 그러나 루아얌은 페미니스트 진영의 지지도, 여성유권자의 지지도 확보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여성적 미, 가족과 모성에 대한 가치를 강조한 전략은 페미니스트 진영에선 이중적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반면, 권력을 남성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보수적 여성층과 일반 근로여성층을 뚫고 갈 전략 역시 부족했다. 이같은 불투명한 태도로 양쪽 여성층의 지지를 모두 잃는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

미국의 힐러리도, 독일의 메르켈도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루아얌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거리를 두는 편을 택했다는 것도 교훈으로 새겨들만 하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후보들을 통해 다양한 선거전략이 시도되고 그 성과는 내년 총선에서 여성 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여성후보들이 정치적 경쟁력과 젠더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활용해나갈지 그 효과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를 추적해 보는 것이 여성유권자들이 진지하게 살펴볼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미완’의 5·18... 5월 영령에 부끄럽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스물일곱 돌을 맞는 날이다. 5월 그날, 민주와 인권, 정의의 횃불을 높이 들며 목숨을 바친 민주 영령들을 추모하며 웃기를 여민다. 오늘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표, 국회의원, 대선주자 등 정치인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민주영령을 추모하고 5월 정신을 되새긴다. 금남로 등 역사의 현장에선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전국 각지에서도 기념식이 펼쳐진다.

하지만 5·18을 역사의 장으로 남기기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27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5·18에 대한 역사적 실제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표 명령자는 여전히 배일애가 거러져 있다. 행방불명자는 몇 명인지, 암매장 장소는 어디인지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한 것도 바

로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5·18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미완의 역사’다.

실제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5월 정신’의 진정한 전국화나 세계화는 이뤄질 수 없다. 아직도 국민의 16.9%가 5·18을 ‘폭동’이나 ‘사태’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5월 정신’을 화해와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5·18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기념비이자 길이 기억될 진보의 역사다. 80년 5월 광주의 피와 눈물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따라서 진상규명과 함께 체계화된 교육사업, 국제협력 등을 통해 5·18 정신을 올바르게 선양하고 역사발전의 교훈으로 삼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책무이고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다.

‘심사 부정’ 연루 지역미술계 각성해야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 부정과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선거 비리에 광주·전남지역 미술인 100여명이 연루돼 충격이다. 특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9명 가운데 한국미술협회 전 이사장 하모씨를 비롯 6명이 지역 미술인이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 미술인들이 사건의 핵심이나 다름없다. 하씨는 미술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후배에게 1천만원의 돈을 받고 있다. 문인회분과위원장 김모씨도 심사위원들과 합숙까지 하며 심사결과 조작에 개입했다고 한다.

‘대통령상 6천만원, 특선 2천만원, 입선 500만원’ 식의 ‘합정가격’까지 매겨 놓았다고 할 말이 없다. 상선으로는 남득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 최대의 미술대전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미술계에선 ‘짜고 친 고스름’ ‘유전 입선(有錢入選) 무전낙선(無錢落選)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치러진 미술협회 이사장 선거도 비리 투성이라고 한다.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객 미달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수습위원의 자금이 뿌려졌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지역 미술인 90여명은 특정후보에게 물표를 던져 금품수수 여부 등 수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공모전의 심사 부정이나 선거 비리가 일과성 사건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역 미술계는 침투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도 제자와 후배 등 ‘내 사람 쟁기’가 만연해 있고 계파간 알력이 극심해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미술계는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술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지역 미술계는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을 통해 ‘문화수도 광주’에 걸맞은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칼럼

이준영



대한골절학회 및 조선대병원의 지원으로 지난 4주간 전미 족부 및 족관절 골절 치료의 메카인 미국 워싱턴주 소재 시애틀 허버뷰메디컬 센터로 단기 연수를 다녀왔다.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 레이 아나토미’의 촬영지로 아름다운 시애틀 도심과 멋진 경치가 잘 나타난 곳이다.

병원 건물 외관은 아주 넓고 내부도 미로처럼 얽혀있어서 갈 때마다 약간 혼란스러운 게 아니다. 연구실이나 외래·진료실·수술실 등 모든 내부시설은 다르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 미국인들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었다.

술직히 오기 전에는 막연한 환상 같은 것이 좀 있었다. 우리보다 의료 선진국이니 모든 것이 앞서고 뛰어난 것이라는 환상이었다. 수술·공부는 얼마나 잘할까,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 하루 종일 수술하고 어떻게 연구하나? 환자를 한테 얼마나 설명도 잘해주고 친절할까? 하지만, 막상 접해보니 그런 환상은 깨졌다.

수술의 경우 사실 우리랑 크게 다를 건 없었다. 사람들도 수술하다 안되면 당황하고, 시간 길어지면 마취와 눈치 보고, 외래도 말 길어지고, 환자 의심 으면 그냥 돌려보내버리고..

하지만, 더 소중한 걸 배웠다. 이들은 수술 숫자와 환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

기고

문병민



올해로 정의와 인권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5·18민주화운동 27주년을 맞았다. 5·18 정신이 국민의 가슴에 자리매김하는 데 반세기 가 훌쩍 넘었다 하겠다. 5·18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등불이다. 우리가 당당한 민주인권국가로서 세계의 인정을 받게 된 토대에 바로 5·18민주화운동이 있었다.

이국 국립5·18민주묘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오월 영령들이 잠들어 계시는 성스러운 영역

한 예우의 상징물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합심 노력하여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낸 바 있다. 사회 양극화와 같은 도전에 제대로 대응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르더

5·18민주화운동, 국민역량 결집 원동력으로

이 되고 있다. 1997년 ‘5·18묘지’로 조성된 이래 2002년 국립묘지로 승격되고 2006년 국립5·18민주묘지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곳 묘역을 묘지의 차원을 넘어 민주영령에 대한 추앙과 현충의 열린 공간으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묘지 준공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훌륭한 ‘5·18추모관’을 건립하게 되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국립 5·18민주묘지는 5월 현충의 체험 공간으로, 또한 자라나는 세대가 5·18민주항쟁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민주정신 함양의 장으로, 또 민주유공자에 대

라도 대화하고 타협해서 결론을 내리고 힘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

또한, 분열을 극복하는 일이어야말로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때 국민역량 결집의 원동력은 자신을 희생하여 나라를 지켜낸 분들의 위국헌신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2004년부터 정부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신록이 푸른 빛을 더해가는 시절에 제 2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5·18민주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받들어 국민 화합을 이루고, 국립5·18민주묘지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길 바란다.

〈광주지방보훈청장〉

기업채용 ‘실무경험’ 중시만이 능사 아니다

얼마전 광주의 한 중견 기업의 상반기 취업설명회를 다녀왔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실무경험’을 꼽았다. 다양한 사회경험이 중요하다는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한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 중요한지를 묻는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여러 기업의 인턴사원 모집에서 수백대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것을 보면 실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분위기가 근래의 일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경력사원이 아닌, 사회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신입사원 채용에 실무경험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많은 학생이 대학 시절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험의 기회를 놓치고, 자

신의 전공분야에만 집중함에 따라 사회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사고 또는 식견이 좁아질 수 있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로 올라서기 전에 사회 전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과 유연한 사고를 지니는 게 중요하다. 대학생들이 이러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많은 책을 접하고 견문을 넓히며 종합적인 사고를 키우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기업의 채용문화는 실무중심만 고집할게 아니라 이같은 종합사고의 기준도 포함시켜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희수·광주시 북구 대촌동

시애틀 메디컬 센터에서 배운 것

본관 건물은 크게 4동이 얽힌 구조물인데 헬기 착륙장이 있어서 응급실 진입이 가능하다. 연구와 회의를 진행하는 세미나룸, 외래동이 있는 뒤편에는 시애틀 소방본부의 주 앰블런스나 기사들이 실 수 있게 별도의 주차장과 사무실도 설치했다. 외상이 강점인 우리 병원도 이런 건 본받아도 될 듯싶다.

조직은 3명의 교수와 3명의 전임의·정형외과 전공의·족부 의사·간호사들로 구성됐다. 여기서 자가 알아서 스케줄 표를 보고 외래·수술·세미나를 참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좀처럼 신기술을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과 달리 특이한 장면은 간호사 전임의·스텝·레지던트·여비서·사환 등이 모두 자기 할 일이 정해져서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점. 발을 진찰할 때 흰 수건을 바닥에 깔아놓고 정갈하게 진료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라,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을 추구했다. 환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업적을 위한 도구가 아닌, 환자 입장에서 설명할 줄 알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기에 찾아온 환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다.

한센족부센터와 정형외과 외상센터의 수술방은 날마다 바쁘게 돌아간다. 하지만, 잘 알려진 유기적인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기며 사는 것 같다.

4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 미처 생각지 못하고 시술했던 적은 없었는지 반성하게 됐다.

또 최신 기술 등의 비교, 그리고 선진 시스템 등을 경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좀 더 깨어난 의사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해 준 좋은 기회였다.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금융거래 면책자들 차별 없어야 한다

얼마전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동생의 과거 신용불량 사실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동생은 사업을 하다 실패,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이후 상환계획을 세우고 은행으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아 법원에서 면책이 됐다. 동생의 일인테다 법원으로부터 면책까지 받았고 지금 성실히 살고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류조차 접수시키지 못하고 돌아왔다. 면책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동거인

등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는 가족들도 대출 신청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에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면책제도를 두었던 본래 취지에도 너무나 어긋난다.

이는 신용불량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보증자격을 제한하는 일종의 연좌제다. 이같은 금융거래에서 벌어지는 면책자들에 대한 각종 차별이 없어야 할 것 같다.

▲이준영·광주시 서구 마북동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福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동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